

제 49기 결산공고

연 결 재 무 상 태 표

제 49 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

메리츠증권 주식회사와 그 종속회사

(단위 : 원)

과 목	제 49 기
자 산	
1. 현금및예치금	2,222,507,307,845
2. 당기손익-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	24,740,241,540,884
3. 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	648,920,061,987
4. 관계(공동)기업투자	1,666,295,119,450
5. 대출채권	11,177,655,376,837
6. 리스자산	1,300,298,950,498
7. 유형자산	43,119,385,624
8. 투자부동산	6,838,529,795
9. 무형자산	39,657,542,349
10. 법인세자산	182,270,631,257
11. 기타자산	1,819,186,755,215
자 산 총 계	43,846,991,201,741
부 채	
1. 예수부채	1,954,874,966,447
2. 당기손익-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	7,849,760,643,764
3. 차입부채	26,474,744,774,313
4. 총당부채	16,036,648,414
5. 확정급여부채	332,246,287
6. 법인세부채	178,775,911,912
7. 기타부채	2,583,683,037,139
부 채 총 계	39,058,208,228,276
자 본	
1. 자본금	776,139,916,000
2. 신종자본증권	249,886,460,000
3. 기타자본구성요소	1,548,087,012,391
4. 기타포괄손익누계액	122,063,901,000
5. 이익잉여금 (대손준비금적립액) 당 기 : 232,974,832,752원 전 기 : 164,847,247,710원 (대손준비금적립(환입)예정금액) 당 기 : (-)85,459,222,719원 전 기 : 68,127,585,042원	1,918,191,404,074
지 배 주 주 지 분	4,614,368,693,465
비 지 배 주 주 지 분	174,414,280,000
자 본 총 계	4,788,782,973,465
부 채 및 자 본 총 계	43,846,991,201,741

재 무 상 태 표

제 49 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

메리츠증권 주식회사

(단위 : 원)

과 목	제 49 기
자 산	
1. 현금및예치금	1,773,455,517,826
2. 당기손익-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	23,477,365,423,959
3. 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	648,920,061,987
4.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	1,517,349,933,632
5. 대출채권	5,906,345,879,908
6. 유형자산	37,897,040,076
7. 투자부동산	6,838,529,795
8. 무형자산	35,347,410,829
9. 법인세자산	166,989,793,764
10. 기타자산	1,747,632,733,105
자 산 총 계	35,318,142,324,881
부 채	
1. 예수부채	1,947,158,344,729
2. 당기손익-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	7,856,137,917,529
3. 차입부채	18,674,308,967,537
4. 총당부채	56,088,415,349
5. 확정급여부채	332,246,287
6. 법인세부채	133,240,656,775
7. 기타부채	2,103,757,170,926
부 채 총 계	30,771,023,719,132
자 본	
1. 자본금	776,139,916,000
2. 신종자본증권	249,886,460,000
3. 기타자본구성요소	1,714,312,346,595
4. 기타포괄손익누계액	124,761,580,810
5. 이익잉여금 (대손준비금적립액) 당 기 : 222,807,386,645원 전 기 : 163,127,588,154원 (대손준비금적립(환입)예정금액) 당 기 : (-)82,721,329,185원 전 기 : 59,679,798,491원	1,682,018,302,344
자 본 총 계	4,547,118,605,749
부 채 및 자 본 총 계	35,318,142,324,881

위와 같이 공고함

2021년 03월 18일

메리츠증권 주식회사

대표이사 최알렉산더희문

감사의견 : 상기의 연결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 49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김교태